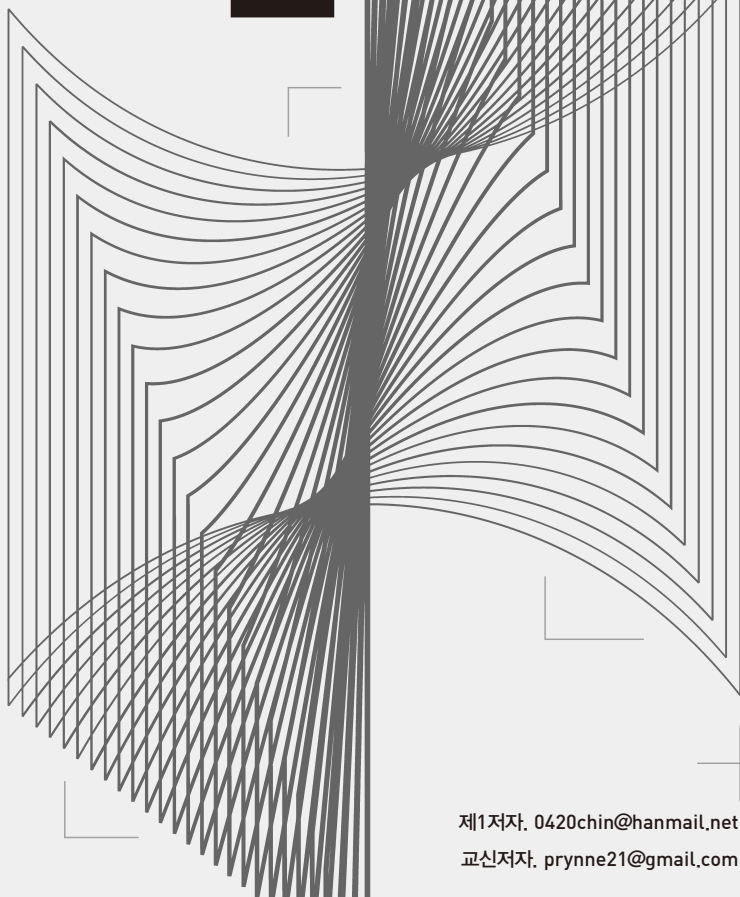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7호

(2025/겨울)



제1저자. 0420chin@hanmail.net

교신저자. prynne21@gmail.com

전인격체로서의 창발적 인간관 연구

「계사전」의 삼재론(三才論)을 중심으로

진성수(전북대학교 · 철학과 · 교수)

이풍우(전북대학교 · 철학과 · 박사과정)

<https://doi.org/10.21738/JHS.2025.12.57.213>

I. 서론

■ 주지하다시피 현대문명은 근대 과학혁명 이래로부터 데카르트-뉴튼적 패러다임의 강력한 영향권 내에 있다.* 이 패러다임의 핵심은 주체(res cogitans)와 객체(res extensa)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주객 이원론(二元論, Subject-Object Dualism)과 우주를 정밀한 기계 부품의 조합으로 인식하는 기계론적 세계관(Mechanistic Worldview)이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인간은 우주와 분리된 관찰자(spectator)인 동시에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주체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원론적 세계관은 전인격체(全人格體)인 인간을 지성(知性) 중심으로 보고 정(情)과 의(意)를 그 하위 개념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이성[知]만을 도구적 합리성으로 격상시켜 파편화된 인간관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분리된 관찰자’로서 인간은 자연을 인격적 감응[情]의 대상이 아닌 오직 인식[知]하고 지배하

* 이 논문은 202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Base Construction Fund Support Program” funded b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5.)

** 자세한 내용은 프리초프 카프라 지음, 김용정·이성범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89, 37~54쪽 참조.

려는[意] 대상으로만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패러다임은 현대에 이르러 한계에 봉착했다. 생태 위기의 심화와 인간 정체성 혼란, 양자역학의 등장은 분리가 아닌 ‘연결과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전물리학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양자역학은 관찰자가 대상의 실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분리된 관찰자라는 근대적 인간관의 토대를 해체하였다. 이에 하이젠베르크(Heisenberg)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 방식에 노출된 자연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서 현대적인 인간관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계사전」에서는 인간을 하늘·땅과 동등한 우주의 핵심 구성체로 파악하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사상을 제시한다.** 삼재란 ‘우주를 지탱하는 세 기둥’이란 뜻으로서*** 삼재 사상에서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닌 천지의 변화[易]에 능동적으로 참여[參]하여 우주적 질서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공동 창조자(Co-creator)의 지위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사전」의 삼재 사상에 담긴 ‘참여적·관계적 인간관’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참여하는 인간의 모델’이 데카르트적 ‘파편화된 이성’이 아니라 지·정·의(知情意)가 통합된 창발적 전인격체(Emergent Holistic Person-

* Werner Heisenberg, *Physics and Philosophy: The Revolution in Modern Science*,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2, p.58: “What we observe is not nature itself, but nature exposed to our method of questioning.”

** 「繫辭下傳」 제10장: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六, 六者非他也, 三才之道也.”

*** 이선경, 『주역의 눈』, 불광출판사, 2025, 45~52쪽 참조.

Body)로서 작동함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계사전」의 삼재론과 관상제기(觀象製器) 개념이 어떻게 지(知)가 우주적 패턴을 인식하고 정(情)이 생명력에 감응하고 의(意)가 문명적 창조의 통합적 발현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둘째, 보어(Bohr)의 상보성 원리와 휠러(Wheeler)의 참여하는 관찰자 개념을 분석한다. 이는 『주역』의 음양론(陰陽論)*과 공명하는 상보적 실재관을 탐구하고 관찰자의 참여가 단순한 인식[知]을 넘어 실재를 확정하는 창조적 결단[意]을 포함하는 ‘전인격체의 행위임’을 논증할 것이다. 셋째, 화이트헤드(Whitehead)의 과정철학을 매개로 하여 과정과 관계성 개념이 「계사전」의 생생(生生) 개념과 부합함을 설명하고, 화이트헤드의 핵심 개념인 파악이 지·정·의 전인격체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철학적 틀이 될 수 있음을 규명할 것이다. 또한 양자역학과 『주역』의 대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어의 상보성과 ‘참여하는 관찰자’를 근대적 객관성의 해체의 관점에서 「계사전」의 음양론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세계관을 「계사전」과 비교하여 검토한 후, ‘관계적 공동창조자’로서의 창발적 전인격체 인간관 정립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 「繫辭上傳」 제5장: “一陰一陽之謂道.”

II. 삼재론과 공동창조자

■ 『주역』은 본래 점서(占書)로 시작되어 공자를 비롯한 유가철학자들에 의해 철학서로 재탄생하였다.* “대전(大傳), 즉 「계사전」은 공자 학파에서 기원한 후대의 추가 저작이다. … 여기에서 『주역』은 철학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논고는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꿰뚫어 본다.”** 특히 「계사전」은 동양의 우주론과 인간론을 집대성한 핵심 경전으로서 인간을 우주의 운행 원리에 종속되거나 자연과 분리된 별개의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오히려 인간을 우주적 질서의 핵심 파트너이자 문명의 공동창조자로서 고유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한다. 이는 천지인 삼재 사상과 관상제기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1. 삼재론과 전인격체

근대 서양 철학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원론에서 출발했다면, 「계사전」은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 통일성과 상호 의존성

* 『주역』이 출발한 형식이 비록 점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발생한 시기에 비추어보면 비록 미성숙하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철학적 사유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자세한 내용은 정병석의 『점에서 철학으로』(동과서, 2014) 18~22쪽 참조.

** Richard Wilhelm,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trans. Cary F. Baynes, Bollingen Series XIX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p.xlix~lvi (Introduction): “The Ta Chuan, or Great Treatise [i.e., Gyesajeon], … is a late addition originating in the Confucian school. Here the Book of Changes is interpreted in a philosophical sense. This treatise penetrates into the metaphysical and spiritual world. …”

을 전제한다. 그 핵심이 바로 삼재론(三才論)이다. 「계사전」에서는 하나의 괘에 천·지·인 삼재가 중첩되어 있으며, 그것을 하늘의 원리(天道)·땅의 원리(地道)·인간의 원리(人道)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지위를 우주론적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구조적 선언이다. 「설괘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토대 위에 인도(人道)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 성인이 역(易)을 만든 것은 장차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따르고자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음과 양이라고 말하고, 땅의 도를 세워 유(柔)와 강(剛)이라 말하고, 사람의 도를 세워 인(仁)과 의(義)라 한다. 삼재를 겸하여 둘로 중첩하였기 때문에 역은 여섯 획이 되어 괘를 이루게 되었다. 음으로 나누고 양으로 나눔으로써 번갈아 유가 되고 강이 된다. 그러므로 역은 여섯 자리가 되어 모든 이치를 이루었다.**

‘사람의 도를 세워 인(仁)과 의(義)라 한다’는 내용에서 ‘지·정·의(知情意) 전인격체’의 원형을 볼 수 있다.*** 하늘과 땅이 음·양과 강·유라는 자연법칙으로 운행한다면, 인간은 인·의라는 고유한 도덕성을 통해 우주적 과정에 동참한다. 왜냐하면, 인·의는 ‘지·정·의의 통합적 발현’이기 때문이다. 인(仁)은 정(情)의

* 「繫辭下傳」 제10장: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六, 六者非他也, 三才之道也.”

** 「說卦傳」 제2장: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六位而成章.”

*** 자세한 내용은 진교훈의 『인격』(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3~59쪽 및 149~321쪽 참조.

발현이고 단순한 추상적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천지의 큰 덕[天地之大德]’인 생(生)의 원리에 깊이 공명하고 만물을 자비롭게 감싸 안으려는 ‘정서적 감응(Emotional Resonance)’ 혹은 ‘전인격체적 감응’이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고 또 낳는[生生]’ 그 놀라운 생명력에 대한 전인격체적 공감이가 바로 인(仁)이며, 동시에 지·정·의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정(情)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義)는 의지[意]의 결단이다. 의(義)는 마땅함[宜]을 의미하며 이는 인(仁)이라는 내면적 감응을 현실에서 ‘마땅하게’ 구현하려는 창조적 의지[意]이다. 정(情)으로 우주의 생명력을 느꼈다면, 의(意)는 그것을 구체적인 문명·제도로 만들어[製器] 우주적 질서를 완성하려는 ‘실천적 결단’이자 ‘의지의 발현’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바로 지(知)이다. ‘인(仁)의 감응’과 ‘의(義)의 실천’은 맹목적이지 않다. 이는 필연적으로 ‘우러러 하늘의 문양을 관찰하고 구부러 땅의 이치를 살피는 행위’, 즉 관상(觀象)을 통해 우주의 원리[理]와 패턴[象]을 꿰뚫어 아는 지(知)를 전제한다.*

만일 주체적 판단[知]이 없다면, 정(情)은 혼란에 빠지고 의(意)는 방향을 잃는다. 따라서 인의를 실천하는 인간은 지·정·의 중 어느 하나로도 환원될 수 없는 조화롭게 통합된 전인격체이다. 따라서 “사람의 도(道)로서의 인(仁)과 의(義)는 명백히 인간 고유의 가치이다. 심의를 저술한 유학자들은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주역』에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토대를 부여했으며 인간을 하

* 「繫辭下傳」 제2장: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늘 및 땅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시켰다.”*고 하였다. 이로써 마침내 인간은 하늘의 명령이나 자연법칙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성, 땅의 공간성과 대등한 위상을 가진 우주의 3대 핵심 동력[三才]이 된다. 즉 하늘이 음양의 변화를 주관하고 땅이 강유(剛柔)로 만물을 낳는다면, 인간은 지·정·의가 통합된 인의(仁義)라는 전인격체적 도덕성을 통해 그 변화를 조율하고 문명을 완성하는 진정한 주체인 것이다.**

2. 참여 방법론: 관상제기(觀象製器)

‘삼재’로서 인간은 어떻게 우주적 과정에 참여하는가? 「계사전」은 그 방법론으로 ‘관상제기’를 제시한다. 이는 ‘관찰’과 ‘창조’라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의미한다.

『주역』에 성인이 취하는 방법이 4가지 있다. 말로써 실천하는 사람은 패효사를 숭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변화의 법

* Wing-tsit Chan, trans. and comp.,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pp.262~263 : “The jen[仁] and i[義] of the ‘Way of man’ are distinctly human values. By emphasizing them, the Confucianists who wrote the Ten Wings[i.e., Gyesajeon] gave the I Ching a rational and humanistic foundation, raising man to a position equal to Heaven and Earth.”

** “근대 이후 서구 철학은 인간의 이성[知]을 다른 기능들[情, 意]과 분리하고 그것을 우위에 둬으로써 인간을 파편화시켰다. 진정한 인간 이해는 이성과 감성, 의지가 분리되지 않은 지·정·의의 통합적 구조, 즉 전인격체로서의 인간을 회복하는 데 있다. 여기서 정(情)은 관계성의 토대가 되고 의(意)는 창조적 실천의 동력이 된다.” 자세한 설명은 한신석의 「현대철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인적(全人的) 인간 이해: 지정의(知情意)의 통합적 이해를 중심으로」(『교육철학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교육철학회, 2017), 101~102쪽 참조.

칙을 중시하고, 문물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상(象)을 중시하고, 점을 치는 사람은 그 길흉을 중시한다.*

관상제기는 인간의 지·정·의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존재 방식이다. 첫째, 관상(觀象)은 지(知)와 정(情)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늘의 문양[文]을 관찰하고 구부러 땅의 이치[理]를 살피는 것은 단순한 인지[知] 활동만이 아니다. 이것은 우주의 복잡한 현상[象] 속에서 그 근본 원리[理]와 패턴[象]을 ‘읽어내는 능동적 해석[知]’인 동시에 그것에 담긴 우주의 ‘의미[神明]와 생명력에 감응[情]하는 과정’이다. 둘째, 제기(製器)는 의(意)의 창발적 실현으로 관상을 통해 파악한 우주의 원리를 ‘인간의 삶에 유용한 기물과 제도, 즉 문명[器]으로 구체화(actualize)하는 것’으로서 창조적 의지[意]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정(情)의 매개 역할’로서 「계사전」의 인간이 관상[知]을 통해 ‘제기[意]로 나아가는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천지의 큰 덕(德)인 생생(生生)에 대한 깊은 전인격체의 공감’이다. 우주의 ‘나고 낳는 생명력’에 감응[情]함으로써 인간은 그것을 인식[知]하고 실천[意]하려는 전인격체의 참여자가 된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의식[神明]을 통해 우주의 의미를 파

* 「繫辭上傳」 제10장: “易有聖人之道四焉, 以言者, 尚其辭, 以動者, 尚其變, 以制器者, 尚其象, 以卜筮者尚其占.”

** 풍우란은 “그들(성인)은 우주의 현상[象]을 관찰[觀]하고 백성을 위한 기물[器]을 발명[制]하였다. 이것이 관상제기(觀象製器)의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Fung Yu-lan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ed. Derk Bodde (New York: Free Press, 1966), p.140: “They[the Sages] observed the phenomena(hsiang[象]) in the universe and ... invented implements(ch'i[器]) for the use of the people. This is the meaning of kuan hsiang chih ch'i[觀象製器].”

악하는 유일한 존재이며, 동시에 제기(製器) 곧 문화적 창조자이다. 여기에서 기(器)는 단순한 도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계사전」에서 복희씨가 그물을 만들고 신농씨가 쟁기를 만들며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을 열거하듯이 기(器)는 문명(Civilization) 그 자체를 상징한다.* 즉, 인간은 하늘과 땅의 원리를 관찰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유용한 기물·제도·예악·문화로 구체화한다. 따라서 관상제기는 인간이 자연법칙의 수동적 산물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인간의 삶 속으로 가져와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공동참여자 혹은 공동창조자(Co-creator)임을 천명한다.

3. 관계-참여적 공동창조자

인간이 우주적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계사전」은 그 목적이 인간의 단순한 사적 욕망 충족이나 자연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목적은 우주의 근본정신, 즉 ‘고귀한 생명 그 자체’에 있다. “천지의 큰 덕은 만물을 살리는 것이고, 성인의 큰 보물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무엇으로 자리를 지키는가? 사랑(仁)이다.”** 그리고 “넉넉하게 가지는 것을 큰 사업이라고 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성대한 공덕이라 한다. 낱고 낱는 것

* 「繫辭下傳」 제2장: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作結繩而爲網罟, 以佃以漁, 蓋取諸離, … 上古, 結繩而治, 後世聖人, 易之以書契, 百官以治, 萬民以察, 蓋取諸夬.”

** 「繫辭下傳」 제1장: “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何以守位曰仁.”

을 역(易)이라 한다.”* 우주의 본질[易]은 끊임없이 만물을 낳고 또 낳는 위대한 생명력 그 자체이다.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지만 스스로 그것을 완성하지는 못한다. 「계사전」은 만물을 이루고 [成物] 인간의 일을 완성하는 것[成務]이 역(易)의 도라고 말한다. 따라서 “천지의 큰 덕을 생(生)이라 부른다. 이 끊임없는 창조성의 과정을 낳고 또 낳음(生生)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임무는 이 우주적 창조성에 참여하여 그것을 완성(成)으로 이끄는 것이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역할[人道]은 하늘과 땅의 ‘생생(生生)’의 원리를 계승하여 구체적인 문화와 문명으로 완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을 화성육(化成育)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관상제기를 통해 자연의 원리를 문화로 변화[化]시키고 완성[成]하며 길러내는[育]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사전」의 인간관은 분리된 관찰자라는 근대적 사유와 대립한다.

이렇게 볼 때, 「계사전」의 인간관은 3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우주론적 지위로서 인간은 천(天)·지(地)와 동등한 삼재(三才)의 일원이다. 둘째, 인식론적 역할로서 인간은 우주의 패턴(象)을 관찰[觀]하는 능동적 해석자이다. 셋째, 존재론적 임무로서 인간은 문명[器]을 만들어[制] 우주의 생명활동을 돕는 공동창조자이다. 이러한 인간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주와 관계 맺으며 자신과 세계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과정적 존

* 「繫辭上傳」 제5장: “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 Cheng Chung-ying, “Creativity as the Ultimate Foundation of Things in the I Ching,”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Vol. 22, No. 3(1995), p.242: “The Great Virtue of Heaven and Earth is called sheng(life-giving). The unceasing process of creativity is called sheng-sheng(production and reproduction). Man’s mission is to participate in this cosmic creativity and bring it to completion(cheng[成]).”

제이다. 따라서 「계사전」의 인간은 삼재의 일원이자 관찰하는 해석자이며 문명을 만드는 공동창조자이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주의 공동창조자[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인간은 변화시키고 길러내는[化育] 우주적 과정의 참여자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간은 지·정·의(知情意)의 전인격적 활동을 통해 우주와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자신과 세계를 함께 생성해 나가는 과정적 존재자라고 말할 수 있다.

III.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

1. 관찰자 효과와 참여적 실재

「계사전」은 인간이 우주창조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에 기반한다.** 이러한 사유는 그동안 서구 지성사를 지배해 온 고전물리학의 패러다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심신(心身) 이원론과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에 기초한 고전물리학은 우주에 대해 인간과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대한 기계 객체로 전제한다. 이러한 세

* Tu Wei-ming, “The Philosophy of the I Ching and the Idea of Man,” in *Humanity and Self-Cultivation: Essays in Confucian Thought* (Boston: Cheng & Tsui, 1998), p.57: “The human being is not only a creature but also a co-creator(ts'an[參]) of the universe. Man is thus conceived as a participant in the cosmic process of transformation and nurture (hua-yü[化育]).”

** 「繫辭下傳」 제1장: “吉凶悔吝者, 生乎動者也, … 爻象動乎內, 吉凶見乎外, 功業見乎變, 聖人之情見乎辭.”

계관에서 실재(reality)란 인간의 관찰 여부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며, 초기 조건만 정확히 안다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따라서 고전적 의미에서의 인간은 객관적 실재를 발견하는 분리된 관찰자(detached observer)에 불과했다.

그러나 20세기 초 원자(原子) 이하의 미시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양자역학은 이러한 근대적 패러다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고전물리학의 기본 공리(公理)였던 정신과 독립된 실재 혹은 강한 객관성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양자역학은 관찰자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관찰 과정에 필연적으로 얽혀 있음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양자역학은 우주가 고정된 죽은 사물의 집합체 아니라 관계와 확률의 그물망임을 보여주었으며 무엇보다 관찰자의 문제를 철학의 중심으로 소환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관찰자 효과로서 이는 이중 슬릿 실험에서 관찰 행위가 대상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관찰의 행위는 단순한 인식[知] 행위가 아니다. 관

* Bernard d'Espagnat, *On Physics and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476~479: “The notion of a mind-independent reality or strong objectivity, which was a basic axiom of classical physics, can no longer be maintained. Quantum mechanics forces us to accept that the observer is not a mere spectator but is inextricab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observation.”

** 파스쿠얼 조단은 “측정의 결과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가 전자(電子)의 위치를 측정하기로 결정할 때, 그것(전자)은 — 말하자면 — 특정한 장소에 있기로 결심해야만 한다.” Pascual Jordan, “The Rôle of the Observer in Quantum Mechanics,” in *The Physicist's Conception of Nature*, ed. Jagdish Mehra (Dordrecht: D. Reidel, 1973, p.283: “We ourselves produce the results of measurement. When we decide to measure the position of an electron, it must—so to speak—‘make up its mind’ to be at a definite place.”

찰자가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겠다’고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의지(意)가 개입하는 순간이고, 세계는 파동 곧 잠재성에서 입자 곧 현실성으로 확정된다. 이는 분리된 관찰자[知]가 아니라 의지를 가진 참여자[知+意]가 실재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첫째로 관찰하지 않을 때의 파동성이다. 전자를 이중 슬릿을 향해 발사하면 전자는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 행동하며 스크린에 파동의 간섭무늬를 만든다. 둘째로 관찰할 때의 입자성이다. 연구자는 전자가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하는지를 관찰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순간에 전자는 갑자기 입자처럼 행동하여 두 개의 줄무늬만 만들고 파동성은 곧 사라진다. 이는 관찰 행위가 대상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고전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음을 암시한다. 즉, 관찰은 더 이상 실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잠재적 가능성을 입자라는 구체적 현실로 확정하는 능동적이고 창발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2. 상보성의 원리와 음양론

양자 세계의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보어는 상보성 원리(Principle of Complementarity)를 제창했다.* 상보성이란 어떤 대상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타적(mutually exclusive)

* 김환규, 『양자역학과 동양철학 그리고 나』, 좋은땅, 2023, 58~95쪽.

인 두 개의 개념 곧 측정 방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원리이다. 예컨대 빛 곧 전자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다. 이 둘은 동시에 관측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합쳐야만 빛의 전체 모습을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상보성은 『주역』의 핵심 사상인 음양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주역』에서 우주는 음(陰, 수축, 어둠, 수용성)과 양(陽, 팽창, 밝음, 능동성)이라는 대립적인 두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한히 운동하는 실체이다.

역(易)이라는 책은 멀리할 수 없고 그 안의 도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변동하여 머무르지 않아 육허를 두루 흐르니 오르내림에 일정함이 없으며 강건함과 유순함이 서로 바뀌므로 일정한 규칙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변화를 따를 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기운이란 선·악(善惡)의 대립이나 A 또는 B의 배타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음과 양은 서로를 전제하며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며 서로를 포함하고[陰中陽, 陽中陰]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물을 생성한다.** 즉, 음·양은 세계를 구성하는 상보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보어 자신이 193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태극 문양을 접

* 「繫辭下傳」 제8장: “易之爲書也, 不可遠. 爲道也屢遷, 變動不居, 周流六虛, 上下无常, 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適.”

** 「繫辭上傳」 제1장: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動靜有常, 剛柔斷矣. 方以類聚, 物以群分, 吉凶生矣.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 是故剛柔相摩, 八卦相蕩.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日月運行, 一寒一暑.”

하고 자신의 상보성 이론과 깊은 유사성을 느껴 덴마크 기사 작위를 받을 때에 가문의 문장(紋章)으로 태극 문양을 선택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대립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Contraria sunt complementa]’라는 라틴어 문구를 함께 새겨 넣었다.* 이렇게 볼 때, 『주역』의 음양론은 수천 년 전 이미 세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대립적인 힘(power)들의 역동적 균형으로서의 상보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통찰한 것이며, 이는 20세기 최첨단 물리학이 도달한 세계관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3. 참여 우주론과 지·정·의(知情意)

휠러는 참여하는 우주(Participatory Universe) 개념을 설명하며 “어떤 현상도 그것이 기록 (혹은 관찰되기) 전까지는 기본 현상이 아니다.”** 고 말한다. 그는 관찰자의 참여를 통해 우주의 실재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이 참여의 과정을 ‘It from Bit’이라고 불렀다. 이는 실재(It)가 곧 정보(Bit)에서 발생한다는 뜻이다. 여기

* Mara Beller, *Quantum Dialogue: The Making of a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p.159. “In 1937, Bohr was given a recep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 He was struck by the ancient Chinese t'ai-chi t'u symbol (the sign of yin and yang), which he saw as a perfect illustration of his idea of complementarity. He adopted the symbol for his coat of arms, along with the Latin motto Contraria sunt complementa (Opposites are complementary).”

** John Archibald Wheeler. “Information, physics, quantum: The search for links.” In *Complexity, Entropy, and the Physics of Information*(pp.3~28), edited by Wojciech H. Zurek, Redwood City: Addison-Wesley, 1990. p.182: “No elementary phenomenon is a phenomenon until it is a registered (or observed) phenomenon.”

서 Bit를 컴퓨터의 0 또는 1과 같은 차갑고 기계적인 정보로만 해석하는 것은 근대적 지(知) 중심의 편협한 시각이다. 휠러 자신이 Bit를 관찰 장비의 클릭(click) 또는 우주를 향해 던진 예/아니오(yes/no)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묘사했듯이 Bit는 바로 행위(act)이자 사건(event)이다.*

휠러의 참여하는 우주 개념은 지·정·의 전인격체의 참여를 요청한다. 즉 휠러의 관점으로 볼 때, 관상(觀象, 知+情)은 단순히 보는 행위를 넘어 우주의 무한한 잠재성[易]에서 의미 있는 패턴[象]을 읽어내는 능동적 참여[知]이다. 그리고 이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It from Bit)는 감응[情]을 전제한다. 또한 제기(製器, 意)는 관찰을 통해 가능태가 현실태로 확정되는 이 과정이 기(器, 문명)를 만들려는 인간의 창조적 의지[意]의 개입을 통해 완성된다. 이에 휠러는 관찰자 효과를 우주론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참여하는 우주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우주가 우리와 상관없이 저기(out there)에서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인간의 참여를 통해 비로소 그 실재성이 확정된다는 독특한 사유이다. 그에 게 관찰은 우주에 실재적인 정보를 부여하여 존재를 창조하는 행위, 즉 ‘비트(Bit, 정보)를 통해 잇(it, 실재)을 창조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계사전」의 삼재론에 기초하여 인간이 우주의 공동 창조자로서 지·정·의를 가진 전인격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리

* John Archibald Wheeler, "Information, physics, quantum: The search for links." 『Complexity, Entropy and the Physics of Information』, Wojciech H. Zurek, Addison-Wesley, 1990, p.5: "In short, every 'it' — every particle, every field of force, even the space-time continuum itself — derives its function, its meaning, its very existence, entirely or in part(that is the crucial question) from the apparatus-elicited answers to yes-or-no questions, binary choices, 'bits'."

된 관찰자라는 근대적 인간관을 근본적으로 해체한 양자물리학의 성과와 일치한다. 우주는 더 이상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기계가 아니며 실재는 관찰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세계는 A이거나 B인 논리가 아니고 A이면서 B인 상보성의 논리(음양의 논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적이고 관계적 세계관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체계화할 수 있을까?

IV. 과정철학의 계기와 파악

1. 구체성의 오류 비판

근대적 사유의 철학적 뿌리, 즉 주체와 객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데카르트-뉴턴적 세계관을 가장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철학자가 바로 화이트헤드이다.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에서 출발하여 당대의 최신 과학(상대성 이론, 양자론)에 정통했던 화이트헤드는 서양 형이상학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오인하는 오류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것을 잘못 놓인 구체성의 오류(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라고 불렀다.

잘못 놓인 구체성의 오류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오인하는 오류이다. 이 오류가 근대철학에서 실체라는 관념이 지배하게 된 이유이다. 그것은 물질이라는 추상적 실체를 구체적인 경

힘의 유기체로 오인한 우연한 실수이다.*

근대 과학은 우주를 물질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로 가정했지만 이는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추상해 낸 개념일 뿐, 정작 진짜 실재(really real things)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게 궁극적 실재는 고정된 사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살아있는 과정 그 자체이다. 그는 이러한 과정 중심의 새로운 형이상학 곧 유기체 철학을 제시했으며, 이것은 「계사전」의 핵심적 사유와 공명한다.

화이트헤드 철학의 제1원리는 ‘존재는 생성의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철학의 2천 년 전통을 뒤집는 선언이었다. 플라톤 이래 서양의 주류철학은 영원불변하는 존재(실체, 이데아)를 진짜 실체로 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을 불완전하거나 가상적(假想的)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정반대로 우주의 궁극적 실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자기를 창조하는 과정 혹은 생성이라고 말한다.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은 ‘존재(being)’보다 ‘생성’에 우위를 두는 생성의 형이상학이다. 이것은 『주역』의 핵심 사상과 통한다. 「계사전」에서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이라고 했듯이 ‘역’은 고

* Alfred North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p.51~52: "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 is the error of mistaking the abstract for the concrete. ... This error is the reason why the notion of 'substance' is dominant in modern philosophy ... It is the accidental error of mistaking the abstract entity 'matter' for the concrete organism of experience." (화이트헤드 지음, 오영환 옮김, 『과학과 근대세계』, 서광사, 1990), pp.91~92.)

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물을 낳고 낳는 ‘생생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낳고 또 낳는 것을 역(易)이라 한다.”**와 “천지의 큰 덕을 생(生)이라 한다.”***는 「계사전」의 핵심 사유와 정확히 일치한다. 「계사전」에서 우주의 본질[易]은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생명 활동 그 자체이다. 이렇게 볼 때, 화이트헤드가 근대적 실체 개념을 비판하고 우주의 근본을 생생(生生)의 과정으로 본 것은 「계사전」의 생생불이(生生不已) 하는 역의 세계관을 서양 형이상학의 언어로 재천명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2. 과정의 유기체와 관계론

화이트헤드는 과정의 구체적인 단위를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라고 부른다. 현실적 계기는 ‘파악(Prehension)’을 통해 우주 전체를 자신 속으로 붙잡아 ‘하나의 통일체’로 종합해 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파악이야말로 지·정·의 전인격체의 작동 방식을 가장 정교하게 설명하는 개념이다.

화이트헤드의 파악은 대략 3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물리

* 오진탁,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주역』철학의 비교연구」, 『철학연구』, 제69집 2004, pp.293~294.

** 「繫辭上傳」 제5장: “生生之謂易.”

*** 「繫辭下傳」 제1장: “天地之大德曰生.”

적 파악(Physical Prehension, 知)은 과거의 우주 전체를 데이터로서 붙잡는 과정으로서 이것은 인식[知]에 해당한다. 둘째, 개념적 파악(Conceptual Prehension, 情)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이것은 감정[情]에 해당한다. 셋째, 주관적 목적(Subjective Aim, 意)은 그 지(知)와 정(情)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하나(One)를 창조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과정으로서 이것은 의지[意]에 해당한다. 요컨대, ‘나’라는 존재는 우주 전체를 지·정·의(知情意)의 전인격적 파악을 통해 창조적으로 종합해 내는 유기체이다. 아울러 ‘나’라는 존재는 「계사전」에서 말하는 하늘[天]과 땅[地]의 원리(陰陽, 剛柔)를 파악하여 인·의(仁義)를 실현하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人)과 정확히 일치한다.

현실적 계기는 ‘데이터를 느끼는(feeling)’ 과정이다. 이 ‘느낌’의 과정이 ‘파악(prehension)’이다. 파악에는 ‘물리적’ 파악과 ‘개념적’ 파악, 두 종류가 있다. 물리적 파악은 선행하는 현실 세계에 대한 느낌[知]이다. 개념적 파악은 영원한 객체(잠재성)에 대한 느낌[情]이다. 그것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그것의 ‘주관적 형식’)는 그것의 ‘주관적 목적[意]’에 의해 인도된다.*

*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Corrected Edition, eds.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pp.23, 219, 248: “An actual occasion is a process of ‘feeling’ the data ... This process of ‘feeling’ is a ‘prehension.’ ... Prehensions are of two kinds, ‘physical’ and ‘conceptual.’ ... The ‘physical prehension’ is the feeling of the antecedent actual world ... The ‘conceptual prehension’ is the feeling of an eternal object(potentiality) ... How it feels(its ‘subjective form’) is guided by its ‘subjective aim.’”

현실적 계기로서의 파악이란 바로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경험의 물방울’이다. 이러한 현실적 계기는 고립된 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적 계기는 파악이라는 과정을 통해 과거의 우주 전체를 자신 속으로 붙잡아 새로운 하나의 통일체로 종합해 낸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발적 세계관’이다. 즉, 이 우주에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나라는 존재 역시 전인격체적 파악을 통해 우주 전체를 창조적으로 종합해 내는 유기체이다. 이것이 바로 기계론에 대항하는 화이트헤드의 ‘창발적 유기체론’이다. 왜냐하면, 유기체에서는 부분과 전체가 분리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모든 것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발적이고 관계론적인 존재론은 「계사전」의 천지인 삼재(三才) 사상과 매우 유사하다. 천지인 삼재에서 인간[人]은 하늘[天]이나 땅[地]과 분리된 독립적 실체가 아니다. 인간은 음·양(陰陽)이라는 하늘의 원리와 강·유(剛柔)라는 땅의 원리를 자신의 내면에서 파악하여 인·의(仁義)로 실현하는 ‘관계적 존재’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을 전제해야만 비로소 인간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도 인간의 참여를 통해 비로소 그 생생(生生)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3. 인간의 위대한 창조성

화이트헤드 철학에서는 모든 현실적 계기가 우주를 파악하

여 새로운 하나(One)를 창발하는 궁극적 동력을 창조성이라고 말한다. 이 창조성은 우주의 궁극적 원리로서 우주를 끊임없이 ‘새로운 과정’을 이끌어 간다.

화이트헤드에게 ‘창조성’은 우주의 궁극적 원리이다. 그러나 이 창조성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 계기’들의 자기 창조 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수동적 피조물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창조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창조성’ 혹은 ‘창발성’ 개념은 「계사전」의 인간관과 만날 때 빛을 발한다. 「계사전」에서 우주는生生(生生)이라는 창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중요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지·정·의 전인격체로서의 인간’이다.** 이에 화이트헤드의 파악이 우주를 수용하는 과정이라면, 「계사전」의 ‘관상(觀象)’은 인간이 우주의 패턴(象)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석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이트헤드의 창조성이 새로운 통일체를 낳는 원초적 능력이라면, 「계사전」의 ‘제기(製器)’는 인간이 그 ‘상(象)’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명[器]을 창조하여 우주의 ‘생생하는 과정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과정이 「계사전」의 ‘역(易)’과 같다면

* 이초식, 「화이트헤드 철학에 있어서의 ‘창조성’과 인간」, 『철학논총』, 제23집 (2001), 248~249쪽.

** 「繫辭下傳」 제8장: “既有典常, 苟非其人, 道不虛行.”

화이트헤드의 ‘창조성’은 ‘관상 제기하는 인간의 주체적 역할’을 통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 곧 과정철학’은 양자역학의 철학적 함의와 「계사전」의 인간관을 하나로 묶어내는 강력한 형이상학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근대적 패러다임이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였다면, 화이트헤드와 「계사전」은 이 둘이 ‘과정이라는 하나의 실재 안에서 통합됨’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란 바로 ‘관계-과정의 차이 생성에 기반한 창발적 전인격체(Emergent Holistic Person-Body)’라고 말할 수 있다. 창발적 전인격체란 ‘이상적이고 조화로우며 균형잡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결핍과 유한함과 불확정성에서 끊임없는 차이 생성(generation of difference)의 움직임’을 통해 점차 되어감의 과정(becoming process)에 있는 창발적 주체’라는 뜻이다. 결국 전인(全人)이 ‘같음 혹은 동일성에 기반한 조화롭고 균형잡힌 상태’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창발적 전인격체’는 ‘다름과 차이성에 기반하여 무한히 생성해가는 과정 그 자체’를 강조하는 개념인 것이다.*

V. 결론

- 이 논문은 근대 데카르트-뉴턴 패러다임의 ‘분리된 관찰자 인간관’이 초래한 문명사적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주역』

*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85~162쪽 참조.

「계사전」의 삼재론에서 찾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문에서는 천지인 삼재론에 기초하여 인간을 천·지(天地)와 동등한 우주 주체로서 ‘관계적 공동창조자’로 규정하고, 아울러 지·정·의가 통합된 전인격체로 보았다. 따라서 관상제기(觀象製器)는 인간이 우주의 패턴[象]을 능동적으로 해석[觀]하고 문명[器]을 창조[制]함으로써 천지의 생생(生生) 과정에 동참하는 ‘공동창조자의 핵심 방법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양자역학은 ‘관찰자 효과’와 ‘상보성 원리’를 통해 고전물리학의 전통적 관념인 ‘분리된 관찰자’ 개념을 완전히 해체했다. 특히 보어의 상보성과 휠러의 ‘참여하는 우주’ 개념은 「계사전」의 관상(觀象) 행위가 실재를 확정하는 능동적 참여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여기에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하였다. 즉 화이트헤드의 ‘실체’ 비판과 ‘과정’의 강조는 「계사전」의 생생(生生) 사유와 일치하며, ‘파악’과 ‘유기체론’은 삼재론에 기초한 관계론적 존재론과 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전인격체로서의 창발적 인간관’은 근대철학이 이성[知]을 우위에 두어 인간을 파편화시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지·정·의’의 통합적 구조를 회복하고 있다. 첫째, 관계적 감응으로서의 정(情)이다. 인간은 고립된 실체가 아니며, 천지자연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 존재한다. 이 관계를 인식하는 근본 동력이 바로 공감과 감응의 ‘정(情)’이다. 둘째, 참여적 관상(觀象)으로서의 지(知)이다. 인간의 인식[觀]은 수동적 반영이 아니고, 우주의 잠재성[象]에 개입하여 현실[器]을 확정 짓는 능동

적 참여이다. 이것은 세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지(知)’의 활동이다. 셋째, 윤리적 제기(製器)로서의 의(意)이다. 인간의 고유한 임무는 ‘관상제기’를 통해 우주의 원리인 ‘생생(生生)’, 즉 생명의 창조적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를 만들고 도덕[仁義]을 실현하려는 창조적 ‘의(意)’의 발현이다.

이러한 ‘관계적 공동창조자’ 모델은 21세기가 직면한 문명사적 위기에 2가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태위기의 극복이다. 근대의 ‘분리된 관찰자’는 자연을 ‘정(情)’의 대상이 아닌 ‘지(知)’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의(意)’로 지배하려 했기에 생태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전인격체 모델은 자연과의 정서적 유대[情]를 회복하고, 자연의 생명활동[生生]을 돕는 방향으로 ‘의(意)’를 발휘하는 생태학적 윤리로의 전환을 추구할 것이다. 둘째, 첨단 기술시대의 윤리이다. 인공지능(AI) 등 현대 기술은 ‘지(知)’의 능력을 극대화하지만 ‘정(情)’의 공감과 ‘의(意)’의 윤리적 방향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정·의 전인격체 모델은 기술[製器]이 생명의 가치와 우주적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참여자’로서의 기술 윤리를 요구할 것이다.

참고문헌

- ◆ 『周易』
- ◆ 프리초프 카프라 지음, 김용정·이성범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89.
- ◆ 화이트헤드 지음, 오영환 옮김, 『과학과 근대세계』, 서광사, 1990.
- ◆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 ◆ 정병석, 『점에서 철학으로』, 동과서, 2014.
- ◆ 진교훈, 『인격』,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 김환규, 『양자역학과 동양철학 그리고 나』, 좋은땅, 2023.
- ◆ 이선경, 『주역의 눈』, 불광출판사, 2025.
- ◆ 이초식, 「화이트헤드 철학에 있어서의 ‘창조성’과 인간」, 『철학논총』 제23집, 새한철학회, 2001.
- ◆ 오진탁,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주역』철학의 비교연구」, 『철학연구』 제69집, 대한철학회, 2004.
- ◆ 류의근, 「동서 비교철학의 방법론적 모색: ‘자의적 유비’의 극복을 위하여」, 『철학사상』 제49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
- ◆ 한신석, 「현대철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인적(全人的) 인간 이해: 지정의(知情意)의 통합적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교육철학회, 2017.
- ◆ Beller, Mara, *Quantum Dialogue: The Making of a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 Chan, Wing-tsit, *trans. and comp*, A Source Book in University Press, 1963.
- ◆ Cheng Chung-ying, “*Creativity as the Ultimate Foundation of Things in the I Ching.*”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Vol.22, No.3, 1995.
- ◆ Cobb, Jr., John B., *Is It Too Late? A Theology of Ecology*, Revised Edition. Denton: Environmental Ethics Books, 1995.
- ◆ Espagnat, Bernard d, *On Physics and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 ◆ Fung Yu-lan,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ed. Derk Bodde. New York: Free Press, 1966.
- ◆ Heisenberg, Werner, *Physics and Philosophy: The Revolution in Modern Science*,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2.
- ◆ Jordan, Pascual, “*The Role of the Observer in Quantum Mechanics.*” In *The Physicist’s Conception of Nature*, edited by Jagdish Mehra. Dordrecht: D.Reidel, 1973.
- ◆ Tu Wei-ming, “*The Philosophy of the I Ching and the Idea of Man.*” In *Humanity and Self-Cultivation: Essays in Confucian Thought*. Boston: Cheng & Tsui, 1998.
- ◆ Wheeler, John Archibald, “*How Come the Quantum? (It from Bit).*” In *The Observers*, ed. G. J. St. Aubyn. London: Constable, 1980.
- ◆ Whitehead, Alfred North,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 ◆ _____, *Process and Reality*, Corrected Edition. edited by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 이 논문은 근대 데카르트-뉴턴 패러다임의 ‘분리된 관찰자 인간관’이 초래한 문명사적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의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사상에서 찾고자 한다. 이 논문은 「계사전」의 삼재론적 인간을 관계적 공동창조자(Relational Co-creator)로 규정하고, 그 작동 원리가 지정의(知情意)가 통합된 전인격체(Holistic Personality)임을 논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계사전」의 천·지·인 삼재와 관상제기(觀象製器)가 지·정·의의 통합적 발현임을 분석한다. 둘째, 양자역학의 상보성 원리와 휠러(Wheeler)의 ‘참여하는 관찰자’ 개념이 지(知)를 넘어 의(意)가 개입하는 전인격체 행위임을 밝힌다. 셋째, 화이트헤드(Whitehead) 과정철학의 파악(Prehension) 개념이 지·정·의의 전인격체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정교한 형이상학적 틀이라는 사실을 규명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지·정·의의 전인격체로서의 창발적 인간관 모델이 분리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대안적 인간관이며, 동시에 현대 생태위기 해결과 기술시대의 윤리적 방향 설정의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주제어: 계사전(繫辭傳), 삼재(三才), 지·정·의(知情意), 전인격체, 창발적 인간관, 관계적 공동창조자



A Study on the Emergent Conception of the Human as a Holistic Personhood: Focusing on the Theory of the Three Powers(Samjaeron) in the “Xi Ci Zhuan”

Chin, Sung s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Philosophy · Professor)

Lee, Poong Woo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Philosophy · Ph.D. Candidate)

■ This paper critiques the civilizational limits imposed by the modern Cartesian-Newtonian paradigm of the ‘detached observer’ and seeks an alternative in the ‘Samjae(Three Powers) Thought’ found in the ancient Eastern text, Gyesajeon(繫辭傳). The study defines the human model in Gyesajeon as a ‘Relational Co-creator’ and posits as its central thesis that this entity operates as a ‘Jijung’eui(知情意) Holistic Personality’-an

integrated system of Cognition(知), Affect(情), and Volition(意). To substantiate this thesis, the paper first analyzes Gyesajeon's concept of 'Gwan-sang-je-gi'(觀象製器, Observing phenomena and creating implements) as an integrated expression of 'Jijung'eui'. Second, it connects this to modern physics, arguing that Quantum Mechanics—specifically Bohr's 'Complementarity' and Wheeler's 'Participatory Observer'—describes a 'holistic act' that involves not just Cognition(知) but also creative Volition(意). Third, the study employs Whitehead's 'Process Philosophy', particularly the concept of 'Prehension', as a sophisticated metaphysical framework that explains the operation of this 'Jijung'eui' holistic personality.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Relational Co-creator' model, understood as a 'Jijung'eui Holistic Personality,' provides a robust alternative to the 'paradigm of separation'. This perspective is proposed as having significant contemporary relevance for overcoming the ecological crisis and establishing an ethical direction for our technological age.

◇◇◇◇◇◇◇◇◇◇◇◇

Keywords: Gyesajeon(繫辭傳), Samjae(三才), Jijung' eui(知情意)
Holistic Personality, Emergent Conception of the Human, Relational
Co-creator

- ◎ 투고 접수 2025. 11. 17.
- ◎ 심사 완료 2025. 12. 16.
- ◎ 게재 결정 2025. 12. 19.